주식전략 이은택 et.lee@kbfg.com
연구원 이다은 de-lee@kbfg.com

2025-07-03

더 많은 리포트 보기

글로벌 자산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달러가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한 시기는 공통점이 있다: 1973년, 1986년, 2002년 상반기

올 상반기 달러인덱스는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다. 상반기 중 지금보다 더 약세였던 시기는 1973년뿐이며, 1986년과 2002년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 세 시기는 모두 글로벌 자산시장 격변의 시작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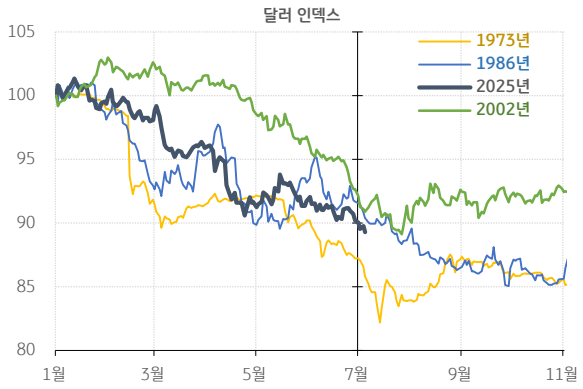
1) 1960년대 미국 경제는 절대적이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과 일본은 생산 능력이 '0'이었고, 중국과 소련은 문을 걸어잠궜다. 자동차, 가전 등은 모두 미국 기업들이었고, 자금도 미국으로만 쏠렸다.

2)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절대적이었다. 유럽은 소련·동유럽 붕괴, 아시아는 외환위기로 깊은 침체에 빠졌다. 또한 인터넷 혁명을 이끈 기업은 오직 미국 기업들이었고, 자금도 미국으로만 쏠렸다.

3) 2010년대 미국 경제는 절대적이었다. 유럽은 유로존 위기, 아시아는 중국 부채 등으로 경기 둔화를 겪었다. 또한 모바일·AI 혁명을 이끈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었고, 자금도 미국으로만 쏠렸다.

4) 1985년에는 플라자합의가 있었다. 폴 볼커의 긴축으로 급등한 달러를 잡기 위해서였다.

달러 인덱스: 올 상반기엔 역대 2번째로 심한 달러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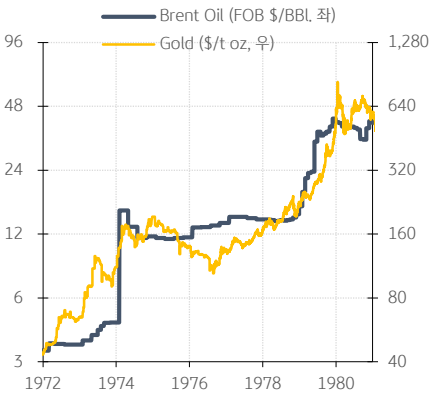


자료: LSEG, KB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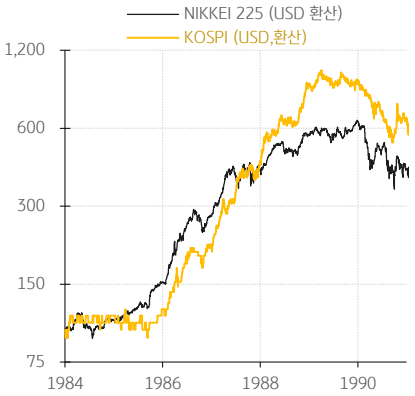
텐베거 자산의 시작: 1973년 원자재, 1986년 제조업 신흥국, 2002년 원자재 신흥국

흥미로운 것은 1973년, 1986년, 2002년이 모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다. 1973년 달러약세는 "원자재"의 10배 상승, 1986년 달러약세는 "제조업 신흥국 (일본/한국 등)"의 10배 상승, 2002년 달러약세는 "원자재 신흥국 (브라질/러시아 등)"의 10배 상승의 신호탄이었다. 지금도 거대한 자금의 움직임이 시작됐을 수 있다. 이그전은 그게 어디로 향할지 거의 1년째 추적 중인데, 곧 결론에 도달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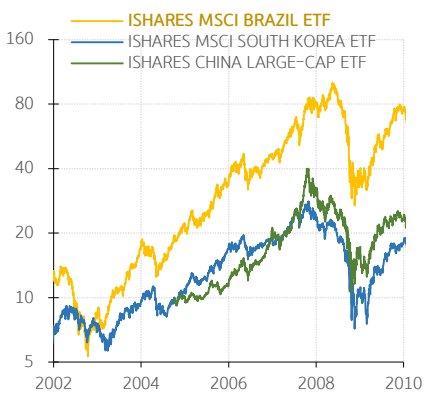
1973년: 원자재 가격 10배 상승의 시작



1986년: 제조업 신흥국 10배 상승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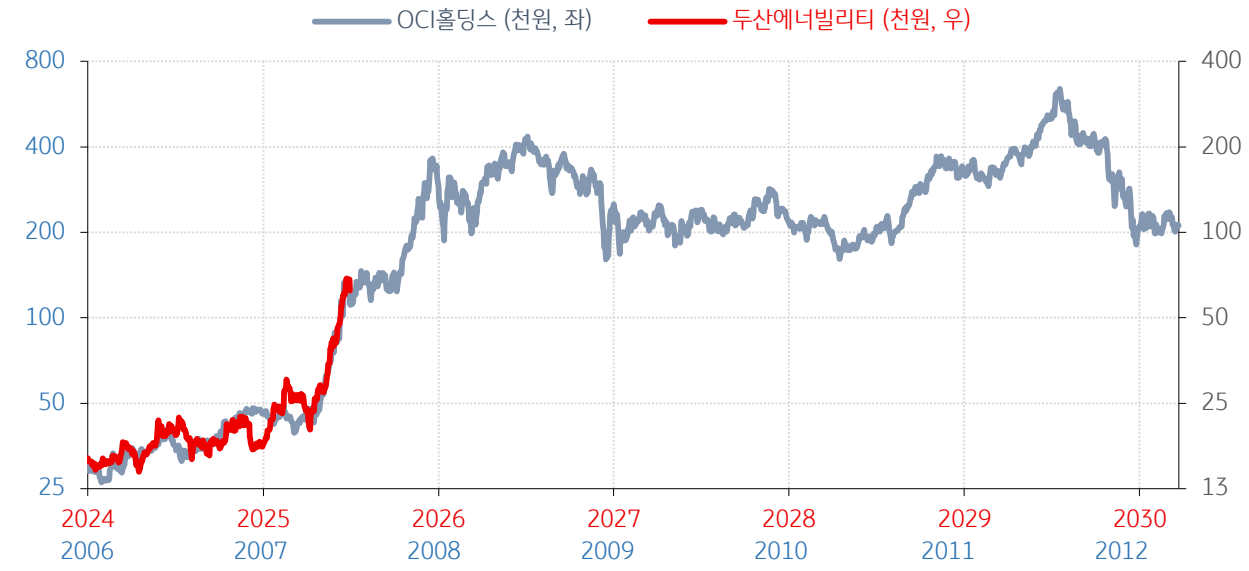


2002년: 원자재 신흥국 10배 상승의 시작



자료: LSEG, KB증권

1. 달러가 상반기에 지금처럼 크게 하락한 시기는 1973년, 1986년, 2002년 뿐이다
2. 이 시기의 글로벌 경제 상황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각각 거대한 자금 흐름의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3. 1973년 원자재, 1986년 제조업 신흥국, 2002년 원자재 신흥국의 '텐베거 신호탄'이었다



자료: Quantiwise 컨센서스, KB증권

투자자 고지사항

종목명	인수 합병 업무관련	1년이내 IPO	BW/CB/EB 인수계약	유상증자 모집주선	주식 등 1% 이상보유	자사주 취득/처분	주식/파생 등 유동성공급	ETF 설정/해지	ELW 발행/유동성공급	채무이행 보증	계열사 관계	공개매수 사무관련
두산에너빌리티						해당사항없음						

-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채권자 채무자인 법인입니다.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